동화와 유물로 보는 절집 하루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절집의 어떤 하루' 展
5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
〈바보동자〉 그림동화 원작으로 전시스토리 재구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화와 유물로 절집의 하루를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하 회암사지박물관)은 5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절집의 어떤 하루'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의 생활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회암사지박물관이 지난해 4월에 열었던 '대가람의 뒷간' 전에 이은 전시다.

이번 전시의 특색은 종교와 연령대를 넘어 많은 계층과 공감하기 위해 사찰에서의 생활을 담은 동화 〈바보동자-정찬주 作, 정윤경 그림, 어린이작가정신, 2017〉 원작의 그림을 변형하여 관련 유물 100여 건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사찰의 생활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절집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조선전기의 거대한 왕실사찰이었던 회암사는 최대 3천여 명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만큼 그 규모와 사세가 대단했다. 현재 회암사 터에 남아있는 맷돌, 우물, 해우소터, 온돌 유구 등을 바라보면 그 규모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전각은 물론 많은 유물 중에서도 옛 회암사의 생활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현재 유물은 주로 기와와 도자기에 거의 한정되어있으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한 생활양식에 대해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를 무대로 한 가상의 하루를 이야기로 설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머물렀을 대가람의 하루를 통해 절집의 일상을 이해하고 그 일상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수백 년 전 회암사의 생활상을 짐작해 본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절집의 일상'이다. 동자는 이른 새벽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과가 고되기도 하지만, 절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기대감에 동자는 법당으로 향한다. 불전사물의 울림을 들으면서 부처님께 아침예불을 올리고 나서 동자는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


정윤경 作, 승방 동자.

△제2부는 '절집의 노동'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백장청규〉)는 말처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 절 안팎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동자도 뒷간 청소에 나선다. 뒷간은 청소할 때는 힘이 들지만, 농사의 기본인 거름을 생산하는 즐거운 일이다. 농사, 청소, 음식준비 등 여러 노동으로 부산하게 돌아가는 절집의 광경을 살펴보고, 동자는 든든하게 공양을 마친다.

△제3부는 '절집의 손님'이다. 임금님이 절집을 방문하는 날이라 모든 경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큰 스님들은 평소보다 위풍당당하게 의복을 갖추고,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손님맞이에 한창이라 경내는 즐거운 광경으로 가득하다. 동자는 여기저기 즐겁게 둘러보다가 먼발치에서 임금님의 행차까지 눈에 담고, 특별했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이 든다.

교성곡으로 듣는 '용성'과 3.1운동

3.1운동 및 독립선언 100주년 음악회 교성곡 '용성'
6월 9일 오후 4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 열려


용성 스님 진영.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6월 9일 오후 4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3.1운동 및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음악회 교성곡 '용성'을 개최한다.

서울특별시 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교성곡 '용성(원작 도문 스님, 작시, 목정배, 작곡 박범훈)'은 백용성 스님의 삶과 역사, 탄생과 유년 시절, 출가와 시련, 그리고 3.1운동에서 대각운동까지 이어지는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며, 국악관현악반주와 합창, 독창과 무용 등 모든 장르를 결합한 한국전통음악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에 불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과 백용성 스님(1864~1940)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3·1운동에 있어서 불교계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특히 백용성 스님은 만해(萬海) 스님의 권유로 3·1운동 직전 참여한 정도로만 알려졌다.

근세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용성 스님은 3.1운동의 실질적 기둥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전통불교 죽이기에 맞서 항일 불교운동을 일으켰고,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찬불가를 보급하는 등 포교에도 업적을 남겼다. 3.1운동 참여후 1년 6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스님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스님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가는 종속국이 되지 말고, 주인다운 주인이 되는 주인국이 되어라"고 유훈을 남겼다.

지휘는 박범훈(불교음악원 원장), 노래는 김성녀(불음합창단 예술감독), 유희성(서울예술단 이사장),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 중앙국악관현악단, 합창은 불음합창단 및 불교합창아카데미, 명법사합창단, 봉국사합창단, 봉은사소년소녀합창단, 메트오페라합창단 등 총300여 명이 출연한다.

박재완 기자

고려사경의 르네상스를…

정향자 사경가 개인전
5월 30일까지 광주 U갤러리

정향자 사경가가 5월 30일까지 광주 U갤러리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부분 36×1050cm 감지금니, 권자본 / 고려(1334년) 보물 제752호 호림박물관 소장 모사복원' 〈사진〉, '관세음보살과 보문품 게송 95×100cm' 등의 정 작가의 고려사경과 성경사경, 궁중민화까지 선보인다.

정향자 사경가는 '조선시대 관음경전의 사경제작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남대 서예학과에 입학한 후 현장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경을 시작했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사경부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전통사경문화를 확산시키고 사경인구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 사경가는 "고려감지금니사경은 왕실발원 사경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왕실의 후원으로 경필사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오직 사경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훌륭한 문화재로 사경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사경을 계승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우수한 청년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정에서 양질의 전문 교육이 필수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종교단체나 개인의 후원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름다운 사경전통의 계승발전으로 예전 고려시대의 사경문화가 다시 한 번 르네상스를 맞이하기를 염원합니다"며 "감지금니사경이 우리나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그 위상을 높이기를 기원합니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숯침대
◆숯카우치
◆좌훈기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